

묵주기도 성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

제1독서

탈출 22,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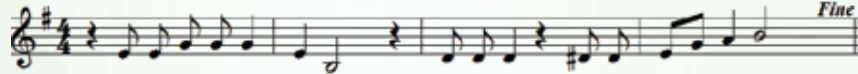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화답송

시편 18(17),2-3 7.3ㄴㄷ-4.47과 51

(◎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 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1테살 1,5ㄴ-10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마태 22,34-40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성가안내

- 입당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500] 평화의 하느님
- 파견성가: [255] 하늘의 여왕



제1독서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탈출기 22,20-26

묵상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²⁰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²¹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²²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²³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²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²⁵ 너희가 이웃의 겹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²⁶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겹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제2독서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살로니카 1서 1,5L-10

형제 여러분, ⁵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⁷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⁹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 계신 참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¹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오 복음 22,34-40

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³⁵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³⁶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³⁸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⁴⁰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When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y gathered together, and one of them, a scholar of the law tested him by asking,

“Teacher, which commandment in the law is the greatest?”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est and the fir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 whole law and the prophets depend on these two commandments.”

그리스도인들이 초세기부터 지향한 완덕의 길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를 터득하려고 속세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적인 방법론이고, 가톨릭 교회의 초기 수도자들이 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을 거쳐, 진정한 완덕의 길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에 대한 기도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아름답게 꾸며지는 ‘내면의 삶’도 하느님과 만남을 통해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우리 이웃들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삶은 바로 우리 외적인 인간관계들의 원천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려고, 그리고 하느님만을 생각하려고, 잠시 이웃들과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리듬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와 활동의 리듬 안에서 늘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삶입니다. 기도는 활동을 지향하고, 활동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초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거룩해지며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완벽한 계명이며, 가장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11월 1일(수) 오후 8시

11월 1일은 하늘 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전례력에 축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다. 동방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이 축일은 609년 보니파시오 4세 교황 때부터 서방 교회에서도 지내게 되었다. 5월 13일에 지내던 이 축일을 9세기 중엽 오늘날의 11월 1일로 변경하였다. 교회는 이날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뒤의 새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지상의 우리와 천국의 모든 성인 간의 연대성도 깨우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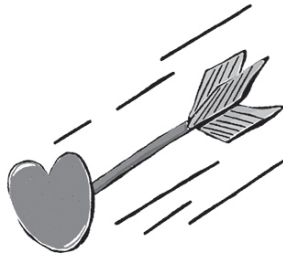
이 주일의 성경 퀴즈

동그라미 속을 채우며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 22, 34-40>
(성경퀴즈 정답은 6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이 한데 모였다. ³⁵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려고 물었다. ³⁶ “스승님, ○○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을 다하고 네 ○○을 다하고 네 ○○을 다하여 주 너의 ○○○을 ○○해야 한다.” ³⁸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을 너 ○○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⁴⁰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에 달려 있다.”

복음묵상

첫째 화살도 사랑
둘째 화살도 사랑이랍니다.
결국
사랑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군요.
간단해 질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마태 22,40)
<임의준 신부, 가톨릭신문>

2017년 “33일 봉헌 기도” 접수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는 33일 동안 단계적으로 자신을 알기, 성모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로 정해진 기도와 묵상 그리고 생활 실천을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 접수: 10월 29일(일)까지 • 기도 시작: 11월 5일(일)
- 봉헌식: 12월 8일(금) 대축일 미사 후
- 문의: 김지윤 그라시아 (571)243-5054, 이기열 콜베 (703)625-1578
- 주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은총의 사닥다리

류해욱 신부

어머니
당신의 이름은 사닥다리
하느님과 인간을 오르내리는
은총의 사닥다리입니다
저희의 기도가 당신을 통해
하느님께 닿고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지오니
당신은 사랑의 사닥다리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신
당신의 응답은
강생의 신비를 열었던 문이었고
구원의 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드린 완전한 응답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인간의 응답이 되었기에
당신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시는 사닥다리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티 없는 배필
늘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계시기에
저희가 성령께 다가가는 길이며
저희가 성령의 내밀한 움직임을
느끼고 알아채는 감지계이십니다
저희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의 눈은 하느님을 향하십니다
당신은 저희가 드린 로사리오를
하느님께 드리는 꽃바구니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하느님 사랑의 편지를 전해 주시는
평화의 배달부이십니다

어머니
당신은 지친 영혼의 쉼터
영적 성장의 배움터이십니다.
당신 안에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당신을 통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당신은 깊고 검푸른 바다
헤아리기에 신비하시지만
눈을 감으면 당신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 얼굴은
하느님을 마주하심으로
강물 위에 햇살처럼 빛나시며
담장에 핀 장미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느끼기에
당신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Annual School Picture Day



2nd

There was an Annual School Picture Day on Sunday, October 22nd. During recess, 2nd, 4th, 5th and 6th grade students had their pictures taken in front of our Mary Statue. Also, Fr. Paik and Fr. Bang joined this tradition with pleasure.

It was a clear and beautiful autumn day. Although the bright sunlight dazzled their eyes, students showed a great smile- whether it was close-mouthed or toothy. There will be another picture day on November 5th for the classes that did not have their pictures taken.



5th



4th



6th

ANNOUNCEMENT

1. First Communion Registration Service

- **When :** 10/22-11/12 (Sundays), 9:30am-1:30pm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The first class will be on Wednesday, Dec. 6, 7:40 pm**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or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2. Protecting God's Children(VIRTUS Training)

- **When :** Nov. 8(Wed), 7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110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hawn Boyle*(Parish OPCYP Liaison) boyle5284.1@gmail.com

3. Join SPC Student Liturgy Team

- **Candidates :** 6th - 12th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SPC Sunday School
- **Application :** October 8 - October 29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ohn Seok* at (703) 581-3719 or aranghyunbin@gmail.com

4. Student Confirmation Mass

- **When :** Oct. 30(Mon) at 7:30pm

5. Sunday School Open House

- **Oct. 29(Sun) from 10am - 11:15am**

RALLY 2017



On October 22nd, about 850 high school teens and adult leaders from 50 parishes gathered with Bishop Burbidge to pray, learn and celebrate the Catholic faith at O'Connell high School in Arlington.

The 8-hour-long celebration began with Fr. Thompson's prayer, and teens enjoyed the lecture by Sarah Swafford, outdoor fun activities and an improv session with Improv 321.

Fifteen CYO students and four teachers from St.Paul Chung Sunday School attended this event.



The whole point of Rally was to get closer to God and to learn what it means to love. There were many activities that we could do like learning how to use the rosary, reading the bible, and the all time favorite: going on the inflatables. We made many friends we will never forget. Next year, I wish I could come back and meet the friends I've made this year.

Richard Hong, CYO Student

The programming for Rally 2017 was amazing. The speakers talked about everything from Catholic dating advice to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God. My favorite parts of the event were the mass led by Bishop Burbidge and the 321 Improv comedy show.

Jennifer Hwang, CYO teacher

All Saints' Day

WORD SEARCH



Circle the 12 words listed below. Words appear straight across, up and down, and diagonally. Check your work with the answers next week!

C	E	O	N	I	N									
H	S	H	L	W	O	O	O	T	O					
J	U	D	E	X	U	Y	T	I	P	A	U	L	A	
K	F	R	A	N	C	I	S	W	A	A	I	I	P	N
X	G	G	C	H	R	I	S	T	O	P	H	E	R	N
A	H	F	U	B	B	F	R	T	M	F	D	A	N	E
P	A	U	L	C	H	U	N	G	H	A	S	A	N	G
M	M	A	R	Y	D	R	Z	A	B	H	E	E		
T	G	R	B	J	O	A	N	O	F	A	R	C		
H	W	G	T	M	J	O	S	E	P	H				
E	N	I	C	H	O	L	A	S						
R	P	E	T	E	R	E								
E	B	E	T	Z										
S	Q	K												
A														



WORD LIST

- ANNE
- CHRISTOPHER
- FRANCIS
- JOANOFARC
- JOSEPH
- JUDE
- MARY
- NICHOLAS
- PAUL
- PAULCHUNGHASANG
- PETER
- THERESA





로고스 청년 피정 Journey Home

주님의 '집'으로 모여든 젊은이들, 말씀 안에서 은총과 위로를 ...

본당 청년들과 인근 대학 학생들을 위한 청년 피정 "Journey Home"이 지난 10월 21일(토) 본당에서 열렸다. 타지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며 지내는 학생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집'에서 하느님 말씀을 나누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자 해마다 열리는 "Journey Home" 피정의 올 해 주제는 "위로의 은총과 봉사".

로고스 청년들과 UVA, Virginia Tech, VCU, GMU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과 방명준(라우렌시오) 보좌 신부님의 환영인사와 강복으로 피정이 시작되었다. 이 날 오전 나눴는 지난 6월 중의 독서와(코린토 2서1,1-7) 그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로'에 대한 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독서와 강론을 읽은 후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고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며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타인에게 그 위로를 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점심식사와 소사예사의 찬양에 이어 방 라우렌시오 신부님의 강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과 동그랗게 둘러 앉아 강론 말씀과 영상으로 청년들에게 신앙을 전한 신부님께서서는 청년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고충을 위로하였다. 몇 가지 이벤트와 고해성사를 마치고 성전에서 다함께 특전미사를 드렸다.

피정의 마지막 이벤트로 미사 전 종이에 익명으로 적어놓은 '하느님께 위로받고 싶은 일'을 무작위로 뽑아서 준비된 카드에 위로의 편지를 적어 서로 나누었으며, 소사예사의 찬양으로 피정은 막을 내렸다.

이번 Journey Home에 초대된 스테파노 형제(홍균우 스테파노, UVA)는 "한인 천주교 커뮤니티가 없는 동네에 살아서 피정이라는 자리가 매우 뜻깊었다"며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천주교 형제자매들과 소통하고, 더욱이 신부님과 고민을 같이 나누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로고스청년회 회장단은 "많은 학교들이 천주교 학생회들의 비활성화로 인해 예년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하느님 '집'의 따뜻함을 전하는 피정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로고스회 기사 제공)



요한회 에미츠버그 성지순례

50대 신자들의 모임인 요한회(회장 배석범 알베르토)가 지난 10월 22일(일) 에미츠버그(메릴랜드)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아름다운 에미츠버그 성지의 정취 속에서 10여 명의 참가 회원들은 십자가의 길과 현지 미사 봉헌을 통해 주님께로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성지 인근의 커닝햄폴스 공원에 들러 준비해 간 음식을 나누며 끈끈한 우애를 나눴다.

성경퀴즈 정답

사두가이, 바리사이, 시형, 율법, 마음, 목숨, 정신, 하느님, 사랑, 이웃, 자신, 계명

1 2017년 학생 견진성사 일정

- 견진 미사: 10월 30일(월) 오후 7시 30분 (Michael F. Burbidge 주교님 집전)
- 예행 연습: 10월 29일(일) 오후 1시 (성당, 대부모와 함께)

2 성소후원회 복사단 점심 초대

- 미사 전례에 봉사하는 복사단 학생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에 복사단 학생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0월 29일(일) 오후 12:45 (나눔터)
- 대상: 복사단 학생과 졸업생
- 문의: 김만식 재권요셉 (703)403-1185

3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11월 1일(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축일 미사: 11월 1일(수) 오후 8시

4 레지오 가두 선교 발대식

- 일시: 10월 29일(일) 오전 11:30
- 장소: 친교실(B-3,4)

5 주일학교 공개 수업

- 일시: 10월 29일(일) 오전 10시 - 11:15
-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병자영성체

- 일시: 11월 3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7 성체강복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참석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4일(토)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9900 Braddock Rd, Fairfax)
-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구역임원교육

- 일시: 11월 5일(일) 오전 11:30 (B-1,2)

10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1월 5일(일) 오후 1시 (B-1)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29일(일)	연중 제30주일	레지오 마리아 가두선교단 모임(오전 11:30, B-3,4), 학생견진 예행연습(오후 1시, 성당), 성소후원회-복사단 점심초대(오후 12:45, 나눔터), 성서통독반(오전 11:50)
30일(월)	연중 제30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017년 학생 견진(오후 7:30, 성당)
31일(화)	연중 제30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성령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1월 1일(일)	모든 성인 대축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오후 8시, 성당),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2일(목)	위령의 날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3일(금)	연중 제30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저녁미사와 성체 강복(오후 7:30, 성당), CYO Lock In(오후 6:30, 친교실)
4일(토)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위령의 날 합동 위령 미사(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5일(일)	연중 제31주일	구역임원교육(오전 11:30, B-1,2), 성모임원 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B-3,4)

11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11월 5일(일) 오후 1시 (B-3,4)

12 첫 영성체반 신청

- 신청: 11월 12일까지, 매 주일 오전 9:30-오후 1:30
- 신청 장소: 하상관 로비
- 첫 수업: 12월 6일(수) 오후 7:40
- 문의: 윤정 보일 (703) 371-3589

13 신앙 영성 동영상 세미나

- 황창연 신부님 특별강연 동영상 "자신 꺼안기"
- 일시: 11월 5일(일) 10시 미사후 (A-1,2)

14 2018년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15 Woodbridge 한국어미사 반주자 구함

- Woodbridge 한국어미사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반주 봉사자를 구합니다.
- 문의: 김성현 노르베르도 (703)569-7840

16 라우다떼 (8시미사 성가대) 단원 모집

- 라우다떼 성가대에서는 성탄을 앞두고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김성현 노르베르도 (703)569-7840, 하주리 마리아 (703)509-0346

17 거동이 불편한 분과 임신부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

- 친교실 뒷쪽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과 임신부를 위해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주차허가(Parking permit)"를 받아 자동차 Dashboard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18 하상 후보 광고비 납부

- 하상 후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다음 주일인 11월 5일(일)부터 오전 2시가 1시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30주간: 신명 29-34장/ 루카 1-2장

KACM TV 하이라이트



- 11월 2일(목) 오후 5:00-6:00
- 10월 3일(금) 오후 8:00-9:00
- 10월 5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가톨릭 리더를 만나다: 우리 시대 가톨릭 리더들의 모습. 50년 연기 인생 최주봉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0월 22일 (연중 제29주일)

주일헌금	\$ 7,524.00
교무금	\$ 9,962.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860.00
특별헌금	\$ 190.00
2차 헌금	\$ 2,420.00
합계	\$ 24,95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선교: 아시아 그리스도인들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위로 복음을 증언하고, 특히 다른 종교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이가다), 오인균(바로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하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백침(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도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오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피아노 레슨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won's Champion School 종합무술 (Before /After/Evening) 703-785-384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호영 (요셉)